

#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 Degree of Recognition and Preparation for the Old Age Life of Public Servants

박현숙\*, 임정도\*\*

대전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Hyun-Suk Park(parkhs@dju.kr)\*, Jung-Do Lim(limjd5794@cup.ac.kr)\*\*

### 요약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편의표본 추출한 30대 및 40대를 중심으로 731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은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83.9%였다. 노후생활 지역은 대도시 근교의 전원 생활이라는 응답이 25.9% 였다.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경제력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33.0% 였다. 여가활동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4% 였다. 공무원들이 노후생활 경제력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75.0%였다.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 정도는 부족하다가 56.0%, 적정하다가 17.2%, 모르겠다가 26.8%였다.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409명 56.0%)가 이었으며, 공적연금의 충족 정도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은 먼저 공적연금 외 경제적 대책 준비정도와 공적연금의 충족 정도 군별로 비교한 결과 부동산 투자, 부족분 자녀도움, 자신의 보유자산 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 중년층이 노후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단 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측면에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 하였다.

■ 중심어 : | 공무원 | 노후생활 | 인식 | 준비 |

### Abstract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degree of recognition and preparation for the old age life of public servant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731 middle-aged public employees in Pusan, Ulsan, Kyeong-Nam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67.2% respondents were women. Over 45-years old were 28.4%, Middle level quality of life were 46.1%, Over 20-years career were 26.7%, Administration staffs were 33.4%, and 7th grade were 31.9%.

Second, In Recognition for the old age life, Respondents and their spouse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dependent elderly. Preferred life area was suburban rural area. The order of anticipated problems of the old age life was financial problem, health problem, and leisure activity.

Third, Actually, in preparation for the old age life, the order of respondents preparation was financial stability, health, and leisure activity.

Forth, In the satisfaction degree of public pension for the old age life, the order of response was insufficient (56.0%), appropriate (17.2%), and ignorant(26.8%).

■ keyword : | Public Servant | Old Age Life | Recognition and Preparation for the old Age Life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차를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두 부부의 가족 생애주기 상 노년기는 남편의 경우 14.5년, 부인의 경우 2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여기에 이른 퇴직과 평균수명의 연장 가능성 등의 변수를 감안한다면 노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질 여지가 있다[1].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동시에 출산율의 저하는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 노인부양이 더 이상 가족의 부양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성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2]. 선진국에서는 노인에 대한 국가의 공적 노후보장이 비교적 오랫동안 준비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적 노후보장에 의한 노후 준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1].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지금까지 주로 노년기의 문제로 인식되어 은퇴자 혹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중년층의 조기퇴직 현상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로 전 연령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의 중년층은 상당수가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그들의 절대적 인구 규모 및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 그리고 이들이 곧 노년기에 진입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이 연령집단의 노후준비는 머지않은 미래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3].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악화로 인하여 생활비용이 증가하는데 비해 직업역할 및 사회적 역할 상실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소외감까지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노후에는 신체적,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9년에 전국의 45~60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전화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중 68%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2%는 노후준비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노후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이와 같이 노후대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조사되어 노후 준비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후의 경제적 중요성은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5]의 연구결과와 같이 노후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경제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노후에 대한 준비가 중장년층에서부터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6].

평소 안정적 급여와 정년을 보장받으며 근무하지만 공무원의 정년 후의 은퇴 프로그램이나 퇴직자에 대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며 그들이 평생 소유한 전문성 또한 정년과 동시에 대부분 묻히게 된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도 노년기는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며 또한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후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으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소방직이나 간호직 등 일부 공무원을 한정된 연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를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후의 생활준비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준비 내용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 둘째,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준비상태를 파악한다.
- 셋째,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을 파악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문제

일반적으로 사회구조가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함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화는 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발전, 대준교육의 확대, 도시화를 핵심요인으로 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대화의 요인들이 인과적으로 다른 요인들을 유발시켜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현대화 이론의 핵심이다.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다는 것은 곧 역할상실, 고립, 소외감, 정신건강 악화 등의 문제가 되므로 현대화의 요인들은 결국 노인문제를 유발시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7].

노인문제는 노인과 그의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는 계기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하나는 노인측면의 문제로서 노동력의 상실과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와 단절, 일상생활 능력의 쇠퇴, 자주적인 인간성의 상실 등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나 사회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노인에게 대하여 경제적 부양이나 신체적 부양, 정서적 부양이 각각 불충분하거나 완전 결여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8].

즉, 노년기의 문제는 노인이 되어 가면서 취약했던 신체적 문제점들이 점차 질병으로 발전되어가는 것과 소득의 상실 등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일상에서 유지되어 왔던 인간관계의 축소로 인한 공허함과 소외감 등이 대표적인 노년기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노후대책의 의미와 선행연구

대책이란 사전적의미로 ‘어떤 일에 대처할 방책’으로 노후대책이란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배향선[9]은 노후대책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노후대책을 뜻하는 적극적인 대책과 기

타의 모든 대책 방식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노후대책의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신체적 준비·경제적 준비·정서적 사회적 준비로 분류 구분하였다.

현대의 우리나라 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관계의 변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노년기의 생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박효영[10]은 청·장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후생활을 스스로 해결’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독립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노후생활 대책에 대해 이희경[11]은 중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연구에서 연구대상 응답자들은 노후생활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를 걱정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노후준비와 관련되어 사용한 지표들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노후준비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노후준비의식	노후대책 유형
최점수(1994) 이형숙(1996) 박주선(2007)	노후생활의식 노후경제의식 노후동거의식 노후정년의식 노후정서의식	경제적 차원 신체적 차원 정서적 차원
장민재(2003)	노후생활 시작시기 노후생활에서 중요한 것 노후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 노후부양책임주체	경제적 대책 수립 및 실행여부 건강준비 여가활동
이해근(2006)	노인이 되는 시기 노후생활에 가장 중요한 점과 문제가 되는 점 노후의 부양책임, 자녀들의 부모부양 문제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 노후대책 준비 시기	경제적 준비 및 건 강대책 사회활동 및 주거 대책
박효영(2009)	노인이 되는 시기 노후생활에서 중요한 문제 노인부양 책임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김희정(2010)	노인이 되는 시기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 노후준비시기 자녀와의 동거기대 정년시기 노후에 기대되는 수입원 노후의 정서적인 문제	경제적 차원 신체적 차원 정서적 차원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현재의 청·장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적으로도 노인이 되는 당사자가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는 노후대책이 아니라 자신의 노년기 삶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회경[11]은 중년층 직장인의 노후대책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에서 전체 연구대상자의 42.0%가 40대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후에 대한 준비는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무원 집단에 대해 노년기에 접어든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청·장년층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731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분석지표

2008년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노후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예금·저축·보험 등이 필요성이 45.3%로 가장 높았으며, 재테크의 필요성 14.4%, 경제활동 참여도 14.3%, 개인연금가입 13.3%, 국민연금 가입 10.4%로 응답하였는데,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이유는 자녀에게 위탁 47.5%, 준비능력 부족이 43.2%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김희정[12], 박효영[10], 이해근[13], 장민자[14]가 사용한 조사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표 2]와 같이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은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자·노후 생활지역·노후에 경제력 상실 시 생활방법·노후생활에 예상되는 문제점, 노후생활 문제점에 대한 준비상태는 경제력에 대한 준비상태·건강에 대한 준비상태·여가활동에 대한 준비상태, 노후생활

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은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노후생활 준비가 없는 이유로 재구성 하였다.

표 2. 분석지표

구분	변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자 노후 생활지역 노후에 경제력 상실 시 생활방법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문제점
노후생활 문제점에 대한 준비상태	경제력에 대한 준비상태 건강에 대한 준비상태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상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	공적연금의 충족정도 노후생활 준비가 없는 이유

#### 3. 연구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SPSS 18.0K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빈도분석으로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은 1차적 부양책임자, 노후생활지역, 경제력 상실 시 생활방법,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경제력·건강·여가활동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빈도분석 하였다. 노후생활 문제점에 대한 준비상태는 경제력·건강·여가활동의 준비상태와 문제점의 인식정도 간에 상호 관련된 정도를 선형 대 선형결합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은 공적연금 외 경제적 대책 준비내용을 5점 척도로 조사, 그 평균값을 구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공적연금의 충족 정도에 따라 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다. 노후대책 준비가 없는 이유를 5점 척도로 조사, 그 평균 값을 구하여 생활수준과 연령대에 따라 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다. 분산분석의 사후검정으로는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생활 인식과 관련되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파악된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 따라 또는 연구시기에 따라 차이가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과정과 최근 선행연구와의 분석과정 및 내용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분석내용 및 방법의 선행연구와의 비교

연구자	노후생활 인식	노후대책
박효영	○ 분석내용 -노인이 되는 시기 -자녀의 노후부양 기대도 -노후생활에 중요한 문제점	○ 분석내용 -신체적 준비 -노후 거동이 불편할 때 의지할 곳 -치료비 부담 -경제적 준비여부
김희정	○ 분석내용 -노인이 되는 시기 -노후준비시기 -자녀와의 동거기대 -정년시기 -노후의 정서적인 문제 -노후에 기대되는 수입원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	○ 분석내용 -경제적 차원 -신체적 차원 -정서적 차원
본연구	○ 분석내용 -1차 부양책임자 -노후의 생활지역 -경제력 상실 시 생활방법 -노후생활 예상되는 문제점	○ 분석내용 -경제적 준비상태 -건강 준비상태 -여가활동 준비상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
	○ 분석방법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또는 설문항목별로 성별 구분하여 빈도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	○ 분석방법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또는 설문항목별로 성별 구분하여 빈도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
	○ 분석방법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도 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	○ 분석방법 :각 설문 항목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도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
	○ 분석내용 -노후생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경제적, 건강, 여가활동 각각에 대한 인식정도를 5단계로 세분화	○ 분석내용 -노후생활에 대한 각각의 준비상태를 문제점 인식 정도와의 관계로 분석 2. 경제적 준비내용에 대해 공적연금 외 준비내용을 공적연금의 충족정도와의 관계로 분석 3. 노후생활 준비가 없는 이유를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생활수준별, 연령대별 비교분석
	○ 분석방법의 차이점	○ 분석방법의 차이점

#### IV. 결 과

##### 1.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와 같다. 응답자 중 남성은 238명 32.6%, 여성은 491명 67.2%였다. 연령 분포는 45세 이상군 208명 28.4%, 40~45세 미만군 193명 26.4%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30~40세 미만군 192명 26.3%, 30세 미만군 84명 11.5%의 순이었다.

본인이 인식하는 생활수준은 중위층이 337명 4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하위층 267명 36.5%, 하위층 64명 8.8%, 중상위층 이상 54명 7.4%의 순이었다. 경력에서는 5년 미만군 195명 26.7%, 20년 이상군 195명 26.7%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5년~20년 미만군 153명 20.9%, 5년~10년 미만군 102명 14.0%, 10년~15년 미만군 68명 9.3%의 순이었다. 직렬은 행정직 244명 33.4%, 간호직 87명 11.9%, 보건직 81명 11.1%, 의료기술직 51명 7.0%, 식품위생직 6명 0.8%의 순이었다. 직급은 7급이 233명 31.9%로 가장 많았으며 6급 103명 14.1%, 8급 87명 11.9%의 순이었다.

표 4.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N	%
성 별	남 성	238	32.6
	여 성	491	67.2
	무 응 답	2	0.3
연 령	30세 미만	84	11.5
	30~40세 미만	192	26.3
	40~45세 미만	193	26.4
	45세 이상	208	28.4
	무 응 답	54	7.4
본인이 인식하는 생활수준	하 위 층	64	8.8
	중하위층	267	36.5
	중 위 층	337	46.1
	중상위층이상	54	7.4
	무 응 답	9	1.2
경 령	5년 미만	195	26.7
	5년~10년 미만	102	14.0
	10년~15년 미만	68	9.3
	15년~20년 미만	153	20.9
	20년 이상	195	26.7
	무 응 답	18	9.0
직 령	행 정 직	244	33.4
	보 건 직	81	11.1
	간 호 직	87	11.9
	식품위생직	6	0.8
	의료기술직	51	7.0
	기 타	85	11.6
	무 응 답	177	24.2
직 급	9급 이하	56	7.7
	8급	87	11.9
	7급	233	31.9
	6급	103	14.1
	5급	24	3.3
	4급 이상	3	0.4
	무 응 답	225	30.8
계		731	100.0

2.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2.1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은 [표 5]와 같다.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613명 8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나 국가 55명 7.5%, 자식 공동 46명 6.3%, 장남, 장녀 8명 1.1%의 순이었다.

표 5.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1차적 부양 책임자	N	%
본인 및 배우자	613	83.9
장남, 장녀	8	1.1
자식 공동	46	6.3
사회나 국가	55	7.5
기타 및 무응답	9	1.2
계	731	100.0

2.2 노후생활 지역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지역에 대한 인식은 [표 6]과 같다. 대도시 근교의 전원생활이라는 응답이 189명 2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자식과 가까운 거리 183명 25.0%, 시골 고향 131명 17.9%, 중소도시 121명 16.6%, 대도시 102명 14.0%의 순이었다.

표 6. 노후생활 지역에 대한 인식

노후 생활 지역	N	%
대도시	102	14.0
중소도시	121	16.6
시골고향	131	17.9
대도시근교의 전원생활	189	25.9
자식과 가까운 거리	183	25.0
무응답	5	0.7
계	731	100.0

2.3 노후에 경제력 상실 시 생활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노후에 경제력 상실 시 생활방법에 대한 인식은 [표 7]과 같다. 본인이 해결한다는 응답이 314명 43.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복지시설이나 무료양로원입소 112명 15.3%, 정부보조 99명 13.5%, 자녀에게 의지 36명 4.9%, 사립복지시설에

입소 28명 3.8%의 순이었다.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137명 18.7%였으며 무응답은 5명 0.7%였다.

표 7. 노후에 경제력 상실 시 생활방법에 대한 인식

경제력 상실시 생활방법	N	%
자녀에게 의지	36	4.9
사립복지시설에 입소	28	3.8
정부복지시설이나 무료양로원	112	15.3
입소	99	13.5
정부보조	314	43.0
본인해결	137	18.7
생각해보지않음	5	0.7
무응답	5	0.7
계	731	100.0

2.4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표 8]과 같다. 경제력에서는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이 241명 33.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 216명 29.5%, 문제가 될 수 있다 198명 27.1%의 순이었다. 건강에서는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이 304명 41.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218명 29.8%, 그저 그렇다 160명 21.9%의 순이었다. 여가활동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317명 43.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192명 26.3%, 문제되지 않을 것 임 129명 17.6%의 순이었다.

표 8. 노후생활에 예상 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 N(%)

인식정도	경제력		건강		여가활동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12	(1.6)	12	(1.6)	25	(3.4)
문제되지 않을 것임	61	(8.3)	37	(5.1)	129	(17.6)
그저 그렇다	216	(29.5)	160	(21.9)	317	(43.4)
문제가 될 수 있다	198	(27.1)	218	(29.8)	192	(26.3)
매우 문제가 될 것임	241	(33.0)	304	(41.6)	67	(9.2)
무응답	3	(0.4)	-	-	1	(0.1)
계	731	(100.0)	731	(100.0)	731	(100.0)

3. 노후생활 문제점에 대한 준비상태

3.1 경제력에 대한 준비상태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경제력에 대한 예상 문제점의 인식과 준비상태는 [표 9]와 같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524명 75.0%였으며 준비가 없다는 응답은 175명 25.0%였다. 선형 대 선형결합의 교차분석결과 예상문제점의 인식과 준비상태 간에는 준비가 없다는 군이 유의하게(p=0.000)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9. 노후생활 경제력 예상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준비 상태 N (%)

노후생활 경제력에 예상되는 문제점의 인식정도	경제력 준비상태				
	준비 없음	나름 준비	소	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2 (1.1)	10 (1.9)	12	(1.7)	
문제되지 않을 것임	9 (5.1)	50 (9.5)	59	(8.4)	
그저 그렇다	34 (19.4)	171 (32.6)	205	(29.3)	
문제가 될 수 있음	57 (32.6)	133 (25.4)	190	(27.2)	
매우 문제가 될 것임	73 (41.7)	160 (30.5)	233	(33.3)	
계	175 (100.0) (25.0)	524 (100.0) (75.0)	699	(100.0)	
X2(p)	15.181 (0.000)				

X2: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3.2 건강에 대한 준비상태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건강에 대한 예상문제점의 인식과 준비상태는 [표 10]과 같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451명 65.6%였으며 준비가 없다는 응답은 236명 34.4%였다. 예상문제점의 인식 정도와 준비상태 간에는 준비가 없다는 군과 나름 준비한다는 군 간에 Pearson's X2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X2=14.346, p=0.006), 선형 대 선형결합의 교차분석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2=1.350, p=0.000).

표 10. 노후생활건강 예상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준비 상태 N (%)

노후생활 건강에 예상되는 문제점의 인식정도	건강에 대한 준비상태				
	준비 없음	나름 준비	소	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1 (0.4)	10 (2.2)	11	(1.6)	
문제되지 않을 것임	5 (2.1)	31 (6.9)	36	(5.2)	
그저 그렇다	54 (22.9)	95 (21.1)	149	(21.7)	
문제가 될 수 있음	84 (35.6)	122 (27.1)	206	(30.0)	
매우 문제가 될 것임	92 (39.0)	193 (42.8)	285	(41.5)	
계	236 (100.0) (34.4)	451 (100.0) (65.6)	687	(100.0)	
X2(p)	1.350 (0.245)				

X2: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3.3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상태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여가활동에 대한 예상문제점의 인식과 준비상태는 [표 11]과 같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384명 55.9%였으며 준비가 없다는 응답은 303명 44.1%였다. 선형 대 선형결합의 교차분석결과 예상문제점의 인식과 준비상태 간에는 여가활동의 준비가 없다는 군이 나름 준비한다는 군보다 유의하게(p=0.001)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1. 노후생활 여가활동 예상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준비 상태 N (%)

노후생활 여가활동에 예상되는 문제점의 인식정도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상태				
	준비 없음	나름 준비	소	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6 (2.0)	15 (3.9)	21	(3.1)	
문제되지 않을 것임	40 (13.2)	85 (22.1)	125	(18.2)	
그저 그렇다	140 (46.2)	158 (41.1)	298	(43.4)	
문제가 될 수 있음	82 (27.1)	99 (25.8)	181	(26.3)	
매우 문제가 될 것임	35 (11.6)	27 (7.0)	62	(9.0)	
계	303 (100.0) (44.1)	384 (100.0) (55.9)	687	(100.0)	
X2(p)	10.165 (0.001)				

X2: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4.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

4.1 공적연금의 충족정도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은 [표 12]와 같다. 먼저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가 409명 56.0%, 적정하다가 126명 17.2%, 모르겠다가 196명 26.8%였다.

공적연금 외 경제적 대책 준비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공적연금의 충족정도 군별로 비교한 결과 부동산 투자, 부족분 자녀도움, 자신의 보유자산 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공적연금 충족정도가 부족하다는 군의 대책 준비정도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부족분 자녀도움에서도 공적연금 충족정도가 부족하다는 군의 대책 준비정도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자신의 보유자산 이용에서는 공적연금 충족정도가 적정하다는 군의 대책 준비정도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부족하다, 모르겠다 군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공적연금의 충족정도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 (N(%), 평균±표준편차)

공적연금의 경제적 대책 준비내용	노후생활에 대한 공적연금의 충족정도			F(p)	Scheffe-test
	부족	적정	모르겠음		
	409 (56.0)	126 (17.2)	196 (26.8)		
개인 연금 상품 별도 저축	3.06 ± 1.17	3.15 ± 1.23	3.12 ± 1.04	0.364 (.695)	
부동산 투자	2.17 ± 1.09a	2.33 ± 1.21	2.48 ± 0.95b	5.707 (.003)	a(b)
주식, 펀드 투자	2.29 ± 1.12	2.34 ± 1.22	2.42 ± 0.99	0.940 (.391)	
부족분 자녀 도움	1.99 ± 0.86a	2.03 ± 1.05	2.21 ± 0.90b	4.124 (.017)	a(b)
자신의보유 자산 이용	3.71 ± 0.98b	3.98 ± 0.93c	3.65 ± 0.82a	5.330 (.005)	b(c) a,b(c)
노후의 직업 구상 준비	3.23 ± 1.14	3.21 ± 1.08	3.34 ± 0.96	0.864 (.422)	

4.2 생활수준별 노후생활 준비가 없는 이유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생활수준별 노후생활 준비(건강, 경제력, 여가활동)가 없는 이유는 [표 13]과 같다. 노후대책 준비가 없는 이유의 정도를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하여 본인이 인식하는 생활수준 군별로 비교한 결과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가 사회적 지원기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에서는, 분산분석결과 하위층의 평균점수가 3.90±0.90으로 가장 유의하게 높았으며 Scheffe-test 사후검정 결과 하위층군과 중상위층 이상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국가 사회적 지원기대 에서는 분산분석결과 하위층의 평균점수가 2.61±1.06으로 가장 유의하게 높았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에서는, 분산분석결과 하위층의 평균점수가 3.26±1.12로 가장 유의하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에서는, 분산분석결과 하위층의 평균점수가 3.27±1.18로 가장 유의하게 높았다.

표 13. 생활수준별 노후생활준비(건강, 경제력, 여가활동) 없는 이유 (평균±표준편차)

노후대책 준비없는 이유	본인이 인식하는 생활수준				F(p)	Scheffe-test
	하위층	중하위층	중위층	중상위층 이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90 ± 0.90d	3.51 ± 0.95c	3.33 ± 0.87b	2.34 ± 1.11a	25.272 (.000)	a(b,c,d) b,c(d) b=c
자녀의 지원을 받기 때문	2.00 ± 1.01	1.97 ± 0.89	2.04 ± 0.94	1.73 ± 0.74	1.342 (.260)	
국가, 사회적 지원기대	2.61 ± 1.06d	2.37 ± 0.88b	2.46 ± 0.92c	2.12 ± 0.93a	2.671 (.047)	a=b=c b=c=d
아직 필요성 못느낌	3.10 ± 1.16a	2.84 ± 1.07	2.91 ± 1.01	2.73 ± 1.14	1.311 (.270)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26 ± 1.12d	2.87 ± 0.97b	3.06 ± 0.93c	2.34 ± 1.06a	8.654 (.000)	a(b,c,d) b=c=d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3.27 ± 1.18d	2.98 ± 0.98b	3.18 ± 0.93c	2.54 ± 1.10a	6.320 (.000)	a(c,d) b=c=d



4.3 연령대별 노후생활 준비가 없는 이유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연령대별 노후생활 준비(건강, 경제력, 여가활동)가 없는 이유는 [표 14]와 같다.

노후대책 준비가 없는 이유의 정도를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연령대 군별로 비교한 결과 아직 필요성 못 느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직 필요성 못 느낌에서는, 30세 미만 군의 평균 점수가 3.40±1.04로 가장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이 많은 군의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에서도 연령이 많은 군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자녀의 지원을 받기 때문, 국가와 사회의 지원기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4. 연령대별 노후생활준비(건강, 경제력, 여가활동) 없는 이유 (평균±표준편차)

노후대책 준비없는 이유	연령대				F(p)	Scheffe-test
	30세 미만	30~40세 미만	30~40세 미만	45세 이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31±0.80	3.41±1.10	3.34±0.95	3.45±0.99	0.472 (.702)	
자녀의 지원을 받기 때문	2.20±0.79	1.87±0.86	2.06±0.95	2.02±0.94	2.333 (.073)	
국가, 사회적 지원기대	2.56±0.81	2.33±0.91	2.42±0.98	2.52±0.99	1.473 (.231)	
아직 필요성 못느낌	3.40±1.04d	2.96±1.11c	2.73±1.09b	2.68±0.89a	8.963 (.000)	a,b,c(d) a=b=c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06±0.86	3.06±1.06	2.87±1.04	2.90±0.93	1.280 (.281)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3.45±0.92d	3.17±1.00c	2.99±1.03b	2.86±0.93a	6.649 (.000)	a,b(d) b=c, c=d

V. 고찰 및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국가와 사회는 다

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수립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나 사회적 측면에서 현재의 청·장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의식의 전환, 노인의 신체적 변화의 특성을 감안한 노동인력의 취업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노인이 되는 당사자가 국가 및 사회에 의존하는 노후대책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노후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꾸준한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후에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후의 준비는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무원 집단에 대해 노년기에 접어든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청·장년층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731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83.9%로 가장 많았는데, 2006년에 50대를 대상으로 한 이해근[13]의 연구에서도 노후의 부양책임이 본인 및 배우자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81.9%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민자[14]는 노후 부양은 노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가 41.2%·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이 있다가 35.5%로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연구의 시점이 거의 9년 정도 차이가 있어 급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나타난 현상으로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결혼한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을 희망하거나[15],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

결하려는 자립 의식이 강하며 부양의식의 약화라는 가치관의 변화 등[16]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노후생활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대도시 근교의 전원생활이나 자식과 가까운 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노인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취업과 문화적 여가활동, 가족 및 친지와 교류 등이 중요시되면서 고령자 주거시설로는 도시 근교형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거주자들이 이전 생활권의 연장으로서 가족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도시의 각종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제시한 고상미[17]의 전원·휴양형 고령자주거시설 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무원들의 노후에 경제력 상실 시 생활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한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많았다. 2003년에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민자[14]는 경제력 상실 시 대책으로 본 연구의 경제력 상실 시 생활방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정부복지시설이나 자녀에게 의지 항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정부복지비시설이나 무료양로원 입소 15.3%·자녀에게 의지 4.9%인 반면, 장민자[14]는 정부복지시설이나 무료양로원입소 35.5%·자녀에게 의지 14.3%로 본 연구 결과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 특히 노후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1990년 임장순의 연구[18]에서는 48.0%, 1995년 최점수의 연구[19]에서는 28.2%, 2003년 장민자의 연구[14]에서는 14.3%, 2012년 본 연구에서는 4.9%로 시간적 연도의 변화에 따라 자녀에게 의지 하겠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사회적 변화가 보였다.

넷째, 공무원들은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건강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의 71.4%, 경제력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의 60.1%,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의 35.5%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박효영[10]의 노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으로 건강 및 질병문제는 73.0%, 경제적 문제는 54.8%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2003년에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민

자[14] 건강 52.0%, 경제 22.5%라는 결과와는 응답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역시 연구시점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2010년에 20대~40대를 대상으로 한 김희정[12]의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이 경제적문제가 52.5%, 건강관련문제 30.2%로 본 연구 및 박효영[10]의 연구결과와 우선 순위가 다를 뿐 아니라 응답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연구대상에 있어서 본 연구 및 박효영[10]은 청장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 김희정[12]은 20~30대가 80% 이상으로 젊은 세대의 구성이 많을수록 건강보다는 경제력에 의미를 더 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결과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문제점에 대한 준비상태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경제력에 대한 준비상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75.0%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민자[14]의 67.4%,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박효영[10]의 65.2% 보다 높은 비율이었는데 이는 일반직장인보다는 공무원 집단이 경제적 안정감이 높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무관하지는 않은 결과라고 유추된다.

둘째,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건강에 대한 준비상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65.6%로 중년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김정희[20]의 79.2%보다는 낮은 비율이었으나, 병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박해연[21]의 46.0%보다는 높은 비율이었다.

셋째,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상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55.9%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승희[22]의 35.0% 보다 높은 비율이었으나, 중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김정희[20]의 66.4%와 50대를 대상으로 한 이해근[13]의 79.1% 보다 낮은 비율이었다.

즉,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상태에 대한 비율이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보인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층 구성에 따라 연령층이 높을수록 준비상태가 많다는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형 대 선형결합의 교차분석결과

노후생활 경제력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의 인식정도와 노후생활 문제점에 대한 경제력 준비상태 간에는 경제력 준비가 없다는 군이 나름 준비한다는 군보다 유의하게( $p=0.000$ )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의 인식정도와 여가활동 준비상태 간에는 선형 대 선형결합의 교차분석결과와 여가활동의 준비가 없다는 군이 나름 준비한다는 군보다 유의하게( $p=0.001$ )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노후생활 건강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의 인식 정도와 건강에 대한 준비상태 간에는, 건강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군과 나름 준비한다는 군 간의 선형 대 선형결합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X^2=1.350$ ,  $p=0.000$ ).

본 연구결과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적정하다는 응답비율이 17.2%로 중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김남순[23]의 2.4% 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급여소득에 비례하여 예치되는 것으로 공무원집단이 일반 근로자의 급여소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적연금 외 경제적 대책 준비내용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공적연금의 충족정도 군별로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준비내용에서 공적연금의 충족정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낮았으나, 경제적 대책 준비내용 중 부동산 투자, 부족분 자녀도움, 자신의 보유자산 이용에서 공적연금의 충족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자신의 보유 자산 이용에서 공적연금의 충족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급여소득의 영향으로 공적연금의 충족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노후를 위한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겠다는 시대적 사고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민자[14]는 청장년층들은 현재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노후 준비

를 하지 않는 경우가 6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노후대책 준비가 없는 이유를 항목별로 그 이유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생활수준이 하위층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가 사회적 지원 기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항목에서 가장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대에서는 연령이 낮은 군에서 아직 필요성 못 느낌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노후 준비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은 급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급속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은 대다수가 자신이나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후생활지역에 대해서는 가족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도시의 각종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었고, 노후생활 문제점으로 건강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 준비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충족정도에 대한 생각은 낮은 비율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개인연금 등 별도의 저축을 대비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보유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노후 생활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생활수준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나 연령대에 따른 필요성의 인식 정도에 따라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우나 청년층 세대에서는 현재의 생활을 위해 노후를 생각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감될 수 있겠지만, 생활수준이 하위층이라고 생각하거나 연령대가 40세 미만 집단의 공무원들이 노후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내용으로는 사료된다. 이는 연구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

성이 제기되며,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이선형, 최은희,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Vol.14, No.4, pp.193-212, 2010.

[2] 전귀연,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8, No.1, pp.13-24, 2010.

[3] 김백수, 이정화,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Vol.21, No.3, pp.411-425, 2010.

[4]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실태조사,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pp.679-684, 2008.

[5] 이재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5-60, 2012.

[6] 이소정,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75-80, 2009.

[7] 이인수, 노년기 생활과학, 양서원, pp.115-116, 2001.

[8] 김미,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의식조사, 광주보건대학논문집, Vol.17, p.231, 1992.

[9] 배향선, 청·장년층의 노후대책 의식과 노인복지관련시설 선호 양상, 대구한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2-75, 2007.

[10] 박효영, 청·장년층 직장인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3-56, 2009.

[11] 이회경, 중년층 직장인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5-99, 2003.

[12] 김희정, 청·장년층의 노후 준비의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80-86, 2010.

[13] 이해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비노인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100, 2006.

[14] 장민자, 청장년층의 노후생활대책에 대한 의식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4-77, 2003.

[15] 모선희,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p.465, 2005.

[16] 박혜성, 도시주부의 자산관리태도·자산적정인지도에 따른 노후경제 대책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8-60, 2000.

[17] 고상미, 전원·휴양형 고령자주거시설 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6-100, 2011.

[18] 임장순, 도시인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의식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4-80, 1990.

[19] 최점수, 직장인의 노후생활준비 의식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5-75, 1995.

[20] 김정희, 중년직장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대책,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4-55, 2008.

[21] 박해연, 병원근로자의 노후준비 의식과 노후대책,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2009.

[22] 신승희,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8-78, 2010.

[23] 김남순, 중년층 근로자의 노후설계 인식에 관한 연구 : 개인적·사회경제적 특성과 정부정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8-123, 2009.

저 자 소 개

박 현 숙(Hyun-Suk Park)

정회원



- 2002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관리학과(보건학석사)
- 2007년 2월 : 인제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현재 : 대전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의료경영, 보건관리

임 정 도(Jung-Do Lim)

종신회원



- 2000년 3월 : 인제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원물관리, 의료분쟁, 병원물류, 병원경영전략, 의료마케팅